

#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 가능성 연구

## -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 은 주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겸임교수

정 의 숙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목차

---

1. 서론
2. 본론
  - 1) 무용영화의 개념 및 발전과정
    - (1) 무용영화의 개념
    - (2) 무용영화의 발전과정 : 해외를 중심으로
  - 2) 무용영화제 현황과 특징
    - (1) 해외 무용영화제
      - ① 댄스 온 카메라 Dance on Camera(NYC)
      - ② 샌프란시스코 댄스필름 페스티벌 San Francisco Dance Film Festival
      - ③ 이탈리아 스토리즈 위 댄스 Stories We Dance
      - ④ 아르헨티나 댄스필름 페스티벌 Festival Videodanzaba
    - (2) 국내 무용영화제
      - ① 서울무용영화제 Seoul Dance Film Festival
      - (3) 국내 무용영화 발전 가능성
3. 결론

## 요약문

무용과 영상 테크놀러지의 결합으로 시작된 무용영화는 새로운 장르로 자리매김하며 발전되어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실험적인 무용영화가 창작되었고 댄스필름협회가 조직되었으며 많은 무용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무용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과 창작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무용영화제’ 개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창작적 실험은 국내의 무용영화 발전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무용영화에 대한 개념과 발전과정, 해외 여러 무용영화제와 ‘서울무용영화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이들의 협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분석하며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댄스필름 프로젝트’는 댄스필름 제작의 교육과 실험의 장으로, ‘서울무용영화제’는 무용영화 제작자 발굴, 작품 상영, 관객과의 대화, 국제교류, 유통 등의 플랫폼이 된다. 무용영화제는 무용영화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인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이 두 단체의 상생과 발전은 국내 무용영화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기대된다.

---

주제어

무용 영화, 댄스필름, 마야 데렌, 댄스필름협회, 무용영화제, 서울무용영화제, 댄스필름 프로젝트

---

## 1. 서론

지금까지 예술은 각 분야별로 그 예술이 지니는 고유의 특징과 함께 매체적 특성을 테크놀러지와 연계하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특히 1890년대 영사기의 발명과 영화의 시작으로 무용은 영상과 결합하며 진해 왔고, 오늘날에는 무용영화라는 새로운 장르가 생성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다. 지난 날 무용에서 영상매체의 활용은 무대 위에서 공연되어지는 무용을 그대로 녹화하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기록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 움직임과 표현의 특성, 혹은 공연의 현장성과 같은 요소들이 간과되었고 기록 이상의 예술적 가치를 느끼기에는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했었다. 이는 3차원의 무용공연을 2차원의 화면으로 담아낸 결과물의 한계였다.

영상을 무용과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실험을 거듭하면서부터 이러한 한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1950년대 영상을 위해 안무된 보다 예술적이고 미학적인 가치의 새로운 장르로 '댄스필름'이라는 예술 형태가 생긴 이후 무용은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새로운 영상 테크놀러지와 결합을 실험하며 예술적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956년에는 수잔 브라운(Susan Braun)에 의해 미국에서 댄스필름협회(Dance Films Association)<sup>1</sup>가 설립되어 댄스필름의 배포를 위한 정보센터이자 댄스필름 장르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sup>2</sup> 또한 '무용영화제'를 개최하여 교류의 장을 열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많은 '무용영화제'들은 무용과 영상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예술장르로서 무용영화가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傍證)한다. 따라서 '무용영화제'는 무용영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국내 무용영화는 영상이 무대 무용의 장치적 배경이 되거나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인터랙티브 퍼포먼스(interactive performance) 형식으로 제작되

<sup>1</sup> 댄스필름협회 홈페이지 [www.dancefilms.org](http://www.dancefilms.org) 참고. (검색일: 2017.10.30)

<sup>2</sup> 김은정, 「마야 데렌 댄스필름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26쪽.

어 직간접적으로 무대 위에서 영상을 활용하여 왔고 무용영화의 형식으로 제작되어지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무용평론가 심정민은 “영상자체를 통한 무용 활동보다는 극장무대 위에서의 현장 공연을 중요시 하는 우리의 무용 풍토에서 가장 적절히 소통될 수 있기 때문일 것”<sup>3</sup>이라고 말했다. 이는 창작자로서 무용과 영화의 형식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열악한 제작여건, 그리고 장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댄스필름을 통한 소통과 작품의 실질적인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올해 2017년 11월 3일에서5일까지 ‘춤, 영화로 담다’라는 주제로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가 개막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용영화제는 무용영화의 제작 동기에 큰 자극제로써 뿐만 아니라 상영과 유통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무용영화의 실질적인 발전 가능성에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 가능성 연구’를 제목으로 설정하고 무용영화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본 뒤, 무용영화제 분석을 통한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 가능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사(史)적 흐름의 현상을 통해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국내외 무용영화제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며 현재 국내 무용영화의 위치를 인지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무용센터가 주관하는 ‘댄스필름 프로젝트’와 제대로 된 외형과 구성 체계를 확립하며 2017년 처음 시작된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기대효과를 분석하며 실질적인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무용영화제는 무용영화의 과거와 현재의 흐름을 인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무용영화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위해서는 김은정(2008), 박유정(2014), 심정민(2006, 2007, 2009), 한선비(2013)의 논의를 통해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해외 무용영화제의 현황과 특징 그리고 국내 무용영화제의 현황과 특징은 해당 무용영화제의 홈페이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1회

<sup>3</sup> 심정민, 「〈비탄의 황후〉에 나타난 피나 바우쉬의 예술적 특질-무용예술과 영상매체의 조우를 중심으로」, 『오프앤프리영화제 포럼』, 2009.11.22. 자료 참고.

‘서울무용영화제’를 개최하며 〈춤영화에 대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방향제시를 위한 첫 작업〉이라는 제목 아래 《댄스포럼》에서 진행된 좌담회<sup>4</sup>의 논의를 참고하여 무용영화에 대한 이해와 진단,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2. 본론

### 1) 무용영화의 개념 및 발전과정

#### (1) 무용영화의 개념

무용영화는 말 그대로 무용과 영화의 결합이다. Dance와 Film을 그대로 번역하여 댄스필름이라고도 한다. 또한 무용과 영상매체의 창작적 활용에 따라 무용영상, 댄스필름, 비디오 댄스 등의 용어로 혼용되었다. 그러나 무용영상이나 무용영화, 댄스필름은 범위와 형태라는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무용영상이 무용에 활용되는 영상의 모든 형태를 포함한 개념이라면, 무용영화는 무용과 영화가 결합된 영상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형태의 범위, 즉 Dance on Screen의 개념을 가진다. 댄스필름은 영화를 위한 안무로써 새로운 융·복합의 예술적 미학적 형태로서의 장르를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의 개념적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정민은 ‘무용영상’을 “춤 소재로 하고 주제로 삼는, 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을 포괄한다”<sup>5</sup>고 말하며, ‘무용영상’을 다섯 가지의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는 무대 위에서 행해진 무용을 그대로 녹화(recording)한 것, 둘째는 무용가의 창작활동이나 공연제작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으로, 안무가

<sup>4</sup> 2017년 9월 15일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3층 예술자료관에서 춤 평론가 심정민의 사회로 〈춤 영화에 대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방향제시를 위한 첫 작업〉이라는 주제 아래 김지영(서울무용영화제 사무국장), 박일규(서울예대교수, ‘서울무용영화제’ 조직위원장), 서양범(서울예대교수, 영상디자이너), 정의숙(성균관대학교 교수,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좌담회가 이루어졌다. 《댄스포럼》 217호, 2017, 72-77쪽.

<sup>5</sup> 심정민, 〈카메라에 비춰진 춤〉, 《국립극장 미르》, 2007년 2월 자료 참고.

와 작품에 대한 심층적인 영상기록이 되는 형태이다. 셋째는 공연된 작품을 토대로 영화적 연출을 가미하거나 한 편의 영화처럼 새로이 연출한 것이고, 넷째는 영상 자체를 위한 무용으로 댄스필름(dance film), 댄스 포 카메라(dance for camera), 댄스 온 스크린(dance on screen), 비디오 댄스(video dance) 등으로 불리고 있는 형태이다. 박유정(2014)은 댄스필름에 대해 “영화의 예술적이며 미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영화를 위한 안무를 한 것으로, 이것은 무용과 영화의 융·복합의 산물로서 또 다른 예술의 형태이다”<sup>6</sup>라고 말하며 댄스필름의 장르적 특성을 강조한다.

다섯째는 무용과 영상이 극장무대 위에서 상호교류하며 융·복합의 형태로 발현되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interactive performance)가 있다.<sup>7</sup> 심정민이 말한 ‘무용영상’은 무용과 영상의 조우로써 생성되고 활용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한다.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무용영화’의 개념은 무용가와 영상연출가의 창작 의도에 따른 예술적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지향하고 영상물 자체로서의 완성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심정민이 말한 ‘무용영상’의 둘째, 셋째, 넷째의 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의 프로그램에 무용영화에 대한 범위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한 장르로서 자리 잡으며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진 안무’로 구체화된 댄스필름 뿐 만 아니라 무용을 주제로 하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써의 무용영화를 선보입니다.”<sup>8</sup>라는 의식을 표명하여 무용영화를 무용을 주제로 한 극영화로까지 확대한다. 이는 무용영화제라는 특성 상 대중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며 무용영화가 지향하는 가장 최근의 경향을 수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논의되는 ‘무용영화’의 개념은 무용을 소재와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부터 극영화, 댄스필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괄하는 개념을 말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용

<sup>6</sup> 박유정, 「댄스필름에 나타난 영상기법에 대한 연구 : 빔 반데키부스의 「Blush」와 로이드 뉴스의 「The Cost of Living」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18쪽.

<sup>7</sup> 심정민, 〈새로운 첨단 영역, 무용영상에 대한 이해〉, 《댄스포럼》, 2006년 2월 자료 참고.

<sup>8</sup> ‘춤, 영화로 담다’,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 프로그램 중.

가와 영화연출가의 분명한 창작과 목적의식의 발현이다. 또한 두 예술 형태의 충돌과 융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성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의성이다. 이는 무용영화를 하나의 새로운 예술적 장르로 더욱 공고히 구축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제와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용영상, 무용영화, 댄스필름은 영상의 활용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공유하지만 활용 형태나 범위, 예술적 지향의 목표, 그리고 공연장이나 극장과 같은 장소에 따라 인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 (2) 무용영화의 발전과정 : 해외를 중심으로

무용영화의 시작은 영상 테크놀러지의 시작과 맥락을 함께 한다. 1889년 에디슨이 최초의 영사기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를 발명한 이래, 1895년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장비 시네마토그래프(cinematograph)를 발명했다. 인간의 움직임 포착에 대한 갈망에 의해 영상이 발명되었고 이러한 인간의 갈망이 고조를 달리던 당시에 영상발명가와 영화감독들의 관심의 대상은 자연스럽게 무용으로 이어졌다.<sup>9</sup> 초창기의 무용영화는 '기록'의 명제에서부터 출발했다. 20세기 초 단순히 무용을 영상기록으로 남기는 1차원적인 작업이 그 시작점이었다. 1894년 에디슨이 기록한 애나벨의 〈나비춤(Butterfly)〉, 1896년 뤼미에르 형제가 기록한 로이 플러의 〈뱀춤(Serpentine Dance)〉이 무용영화의 시초이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등장과 함께 과학기술의 발달이 예술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단순 기록의 차원을 넘어 장르간의 융복합 실험을 통한 새로운 산물을 생산해 내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무용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영사기에 담아내던 것이 점차 예술의 형태로써 가치를 발현시켰던 시기는 20세기 중반이었다. 무용과 영화의 서로에 대한 예술적 영감과 필요성은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고, 새로운 예술 형태인 댄스필름을 등장시켰다. 전술했듯이 댄스필름은 영화를 위해 안무한 무용을 가지고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댄스필름의 본격적인 시작은 마야 데렌(Maya

<sup>9</sup> 박유정, 앞의 논문, 17쪽.

Deren)에 의해서였다.

데렌은 1940-50년 미국의 실험 영화 제작자이자 아방가르드 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며, 안무가이자 댄스필름의 근본을 창시한 예술가이다.<sup>10</sup> 20세기 아방가르드 운동은 새로운 예술형식으로서의 영화가 가진 혁신적 가능성에 주목했다. 대중문화의 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 영화에 반대하며 인간의 내면, 자아의 탐구와 같은 인지 요소를 영화에 부여하며 직접인 형상화 혹은 이미지만으로도 자아의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아방가르드 영화가 중 한 사람인 데렌은 신체를 언어로서 표현하며 댄스필름이라는 장르를 창시하였다.<sup>11</sup> 기존의 방식이 영화 매체를 도구적인 개념으로만 인식했던 것에 반해 데렌은 움직이는 대상과의 관계를 실험하고 영화와 무용의 두 영역이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등 영화매체에 대한 실험적인 태도와 독자적인 제작 방식으로 무용과의 결합에 있어 새로운 방법과 형식을 탐구하였다. 이를 예술적인 형태로 체현한 최초의 댄스필름 〈카메라를 위한 안무(A Study in Choreography for Camera)〉를 비롯해 그녀의 대표작은 〈물에서〉, 〈폭력에 대한 명상〉, 〈밤의 눈〉, 〈오후의 올가미〉 등이 있다.

데렌 이후에는 머스 커닝햄, 마사 그이엄, 호세 리몽이 댄스필름을 조금 더 다양화 시켰다.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 시도된 무용과 영화의 융·복합적인 실험 작품들 중 특히 커닝햄의 작업은 중요하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전자음악가 존 케이지와 교류하며 영상을 위한 안무 작업을 하거나 자신의 안무 작품을 영상화하기도 했는데, 1987년 안무된 〈공간의 점들(Points in Space)〉()는 제작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다. 심정민은 이러한 제작과정의 다큐멘터리가 커닝햄과 케이지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이 펼치는 ‘각 요소들 간 개별적인 부각’이나 ‘우연의 법칙의 채택’등과 같은 난해하고 실험적인 포스트모던적 예술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말한다.<sup>12</sup>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함께 댄스필름은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

<sup>10</sup> 한선비, 「무용 작품과 댄스 필름의 관계적 특성연구 : 마야 데렌과 로이드 뉴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17쪽.

<sup>11</sup> 박유정, 앞의 논문, 2014, 19~20쪽.

로 인해 보다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실험되어졌다. 저드슨 댄스 씨어터(Judson dance theater)에 기반을 둔 후기 현대무용가들은 무용과 영상과의 결합을 이루기 위한 실험과 탐구에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했다. 이는 사용이 편리한 영상매체로써 비디오가 활용되었고 '비디오 댄스'라는 형태로 작업되어졌다.

오늘날에는 영상매체의 디지털화로 촬영과 편집 등 기술적인 제작여건이 발달하여 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형태의 무용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빔 반데키부츠, 로이드 뉴슨, 필립 드쿠플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영상매체의 기술적 발전은 무용영화를 어떠한 형태로 진화시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술 형태의 다양성과 표현영역의 확장이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의 시류에 편승하기 보다는 무용과 영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예술적 미학적 철학이 그 근간이 됨을 내재화 하고 창작하여야 한다. 댄스필름을 창안한 테렌이 선구자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탐구적이고 실험적인 자세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 2) 무용영화제 현황과 특징

앞서 무용영화의 개념과 발전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무용영화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서 정착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 무용영화는 창작 시도뿐 아니라 장르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해외의 경우 이미 활성화된 무용영화의 활동으로 많은 무용영화제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 댄스필름 협회(DFA)에 등록된 각 나라의 무용영화제를 살펴보면 약 30개국에서 60개 이상이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sup>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무용영화제를 분석하여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무용영화제는 창작 동기

<sup>12</sup> 심정민, 〈새로운 첨단의 영역, 무용영상에 대한 이해〉, 앞의 글 참고.

<sup>13</sup> 미국의 댄스필름협회(DFA) 홈페이지에는 댄스필름에 초점을 둔 각 나라별 페스티벌의 리스트가 소개되고 있다. [www.dancefilms.org/other-dance-film-festivals](http://www.dancefilms.org/other-dance-film-festivals) (검색일: 2017.10.29)

부여에서부터 발굴, 상영, 유통까지를 아우르며 발전의 플랫폼 역할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창작만 하고 소개되거나 유통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역량 있는 무용가와 영화가의 발굴, 소개, 상영, 유통까지 아우르는 무용영화제는 무용영화의 발전에 견인차가 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 남미의 해외 무용영화제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의 무용영화제로는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해외 무용영화제

먼저 해외 무용영화제는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미국 뉴욕의 댄스필름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무용영화제 ‘댄스 온 카메라(Dance on Camera)’와 2010년에 시작되어 최근 해외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무용영화제(San Francisco Dance Film Festival)’를 선정하였다. 유럽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되는 스토리즈 위 댄스(Stories We Dance), 남미는 아르헨티나 댄스필름 페스티벌을 분석하였다.

#### ① 댄스 온 카메라 Dance on Camera(NYC)<sup>14</sup>

먼저 ‘Dance on Camera’를 주관하는 미국 댄스필름협회(DFA)는 수잔 브라운에 의해 1956년부터 뉴욕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비영리단체이다. 무용, 실험적인 교육용 필름,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의 유통을 위한 정보 센터로 설립되었으며, 테드 쉰(Ted Shawn), 프리마 발레리나 알리시아 마카로바(Alicia Markarova), 호세 리몽(Jose Limon)이 브라운과 함께 한 창립했다.

DFA는 예술가와 여러 단체를 연결하고 관객을 위해 새로운 작품을 육성하며 필수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미디어 시도와 멤버십 추구, 최첨단 방식의 무용기록, 학교, 예술 파트너, 미디어 사이트 및 기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객을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DFA에서는 ‘Dance on Camera’ 외에도 Dance Film Lab, Dance Films Presents,

<sup>14</sup> <http://www.dancefilms.org/dance-on-camera> (검색일: 2017.11.03)

Capturing Motion NYC와 같은 연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재정적 스폰서십과 제작지원금을 제공한다. 페스티벌을 비롯해 무용영화제작을 위한 교육과 상영, 유통, 그리고 재정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무용영화의 메카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00 개 이상의 무용영화 작품의 아카이브 필름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유통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무용영화와 비디오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한다.

이러한 DFA가 주관하는 무용영화 페스티벌이 'Dance on Camera'이다. 'Dance on Camera'는 창의성 육성과 안무가와 영화 제작자 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1971년에 시작되어 무용영화 페스티벌로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뉴욕시에서 매년 2월에 열리는 축제로 안무적 스토리텔링과 창조적 표현, 혁신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영화작품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장편 다큐멘터리와 서사영화, 단편영화, 영화 제작자 패널 및 특별 이벤트, 첨단 미디어 아트 설치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학생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기에는 새로운 작업 및 공유 아이디어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온 예술가, 큐레이터 및 학자뿐만 아니라 무용 애호가들이 함께 한다. 또한 'Dance on Camera'에서는 댄스필름의 훈련 및 교육, 라이브 테크닉, 아카이빙, 통합과 장애, 가상과 증강현실의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동작교육과 생산에 관하여 영화제작자들과 예술가들이 소통한다. 1996년부터는 댄스필름협회와 링컨센터의 필름협회가 공동으로 Walter Reade Theater에서 상영 및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2월 3-7일까지 5일 동안 개최되었다. 이 기간 동안 워크숍, 공개토론, Q&A, 기자들을 초청하여 필름 제작자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기회를 증가시키고, 파티 후에는 리셉션을 주최해 업계의 리더들과의 연결 기회를 주며, 페스티벌에 필름 제작자들을 무료로 관람시켜 모든 프로그램의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Dance on Camera' 투어를 통해 영화 제작자의 작품을 선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댄스필름 제작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Dance Film Lab를 운영하고 아카이브에서는 40년 이상 된 'Dance on Camera'의 댄스필름 자료들과 독립적인 예술형태로서의 댄스필름 진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소장

하고 있다.

2017년 주요 상영 작품으로 페스티벌 개막작은 데이빗 바르바(David Barba)와 제임스 펠레리토의 〈Anatomy of a Male Ballet Dancer〉, 폐막작은 마리 헬렌 레보이스(Marie-Hélène Rebois)의 〈In the Steps of Trisha Brown〉이 상영되었다. 다른 주요 작품으로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인 데이빗 고든의 〈David Gordon: Archiveography—Under Construction〉, 마사 그라함의 무용단 창립 60주년 기념의 댄스필름 〈Martha Graham: A Dancer's World〉, 머스 커닝햄이 자신의 오리지널 댄서들과 촬영한 다큐멘터리 〈Crises〉가 있었다.

## ② 샌프란시스코 댄스필름 페스티벌 San Francisco Dance Film Festival<sup>15</sup>

2010년 시작된 샌프란시스코 댄스필름 페스티벌(San Francisco Dance Film Festival)은 무용영화의 프리젠테이션 및 개발을 위한 국제 플랫폼으로 세계 각국에서 제출된 최고의 무용영화를 축하하고 베이(bay) 지역의 안무가와 무용영화 제작자를 격려하고 지원한다. SFDFFF는 베이의 지역사회 파트너와 해외의 넉넉한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해서 몇 년 만에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었고 매년 무용영화 기념행사에 전 세계의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영화제작 워크숍, 대학 및 무용 학교에서 강의, 공공 도서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이 연중무휴로 진행되며, SFDFFF의 프로그래밍은 무대 무용공연의 영화적 해석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위해 만들어진 단편 실험무용 "스크린 댄스(screendance)"와 같은 서브 장르를 강조함으로써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이룬다.

2017년 10월 19일에서 22일까지 개최된 SFDFFF에서는 90편 이상의 무용 영화가 상영되었다. 또한 개폐막식과 상영 후 영화 제작자와의 토론, 라이브 퍼포먼스, 특별 상연 등이 진행되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들도 있었다. 헤드셋을 착용한 참가자들이 다양한 무용영화 안에서 가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VR 360 필름을 처음으로 전시하였고, 유럽에서 샌프란시스코로

<sup>15</sup> <http://www.sfdancefilmfest.org> (검색일: 2017.11.03)

새로운 작품들을 가져와 하루 종일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를 하는 작업이 있었다.

10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에는 SFDF의 영화 공동제작 프로젝트에서 두 편의 신작 영화와 지역 단편영화를 포함해서 베이 지역 예술가들의 축하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상금을 가지고 8개 부문<sup>16</sup>에 시상식을 치르며 막을 내렸다. 그리고 축제의 연장으로 캐더린 클락 갤러리(Catharine Clark Gallery)와 협업하여 9월 9일에서 10월 28일까지 예술/실험 무용영화 전시가 진행되었다.

SFDF는 무용영화 제작 워크숍, 공동 실험 작업, 아카이브, 전시, 상영, 유통 등 국제적인 무용영화 플랫폼 역할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올해 다른 무용영화제와 가장 구별되는 SFDF의 특징은 최근 막대한 재정으로 운영되는 페스티벌답게 VR 360과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객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노력으로 주변 확장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베이 지역과 같은 지역사회의 예술가들과 연계하고 이들을 지원,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무용영화제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페스티벌로 확장시키고 있다. 단 시간의 성장으로 규모가 커진 것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진화해 가는 SFDF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전될 무용영화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다.

### ③ 이탈리아 스토리즈 위 댄스 Stories We Dance<sup>17</sup>

'Stories We Dance'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인터내셔널 비디오댄스 컨테스트이다. 비디오댄스와 퍼포먼스를 하는 Alessandra Elettra Badoino(연극세트 디자이너), Marina Giardina(댄서, 퍼포머), Fabio Poggi(건축가, 퍼포머), 그리고 Marco Longo(필름메이커, 영화비평가) 등 총 4명

<sup>16</sup> Best Documentary, Best Live Performance Capture, Best Art/Experimental, Best Screendance Short Over 10Min, Best Short Under 10 Min, Best Short Under 5Min, Best Student Film, Best Technical Achievement

<sup>17</sup> <http://augenblick4.tumblr.com/storieswedance> (검색일: 2017.11.04)

에 의해 구성된 ‘Augenblick’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Augenblick’는 독일어로 순간, 즉시와 같은 의미를 지니며, 무용, 비디오, 스토리텔링을 컨셉으로 하는 단체이다.

‘Stories We Dance’는 2017년에는 6월 27일에서 29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되었다. 경쟁과 비경쟁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경쟁작은 4명의 전문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되어, Best Story, Best Performer, Best Choreography, Best Concept, Best Director 부분으로 시상되었다.

특히 한국의 안무가이자 댄스필름 감독인 김모든이 <자메뷰(JAMAIS VU)>로 Best Concept상을 수상하였다. ‘JAMAIS VU’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시감(未視感), 실제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경험하는 듯이 느끼는 기억 착각’<sup>18</sup>을 뜻한다. 김모든은 이를 “평소 익숙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현상”<sup>19</sup>으로 해석하고 작업했다고 한다.

#### ④ 아르헨티나 댄스필름 페스티벌 Festival Videodanza<sup>20</sup>

1995년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댄스필름 페스티벌 ‘VideoDanzaBA’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개척자적인 댄스필름 페스티벌이다. 22년간의 역사에서 이 페스티벌은 예술적인 작품들에 대해 정보를 보급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플랫폼이었다. 또한 국제교류, 작품과 라이브 쇼 상영을 제공해 하며 2336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110명의 참가자들이 교육 활동의 이점을 누렸다.

구체적인 예술적 비전은 크게 정보 보급, 교육, 사고(思考)의 처리과정 및 네트워크 개발이다. 이를 위해 실험과 예술적 실습들을 통해 비디오댄스(스크린댄스)의 전문가와 영화 제작자를 위한 전문적인 개발을 촉진한다. 관객, 학생, 예술가, 교사들 사이의 교류를 위해서는 워크숍, 세미나, 관객과의 공개 세션을 통한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아르헨티나 지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원자들을 초청하는 교육부를

<sup>18</sup> endic.naver.com (검색일: 2017.10.30)

<sup>19</sup> 김모든 전화 인터뷰. 2017년 10월 30일 시행.

<sup>20</sup> http://videodanzaba.com.ar (검색일: 2017.11.04)

두고 있으며, 비디오 분야에서 예술가와 제작자의 전문성 개발에 전념하고 워크숍, 레지던시 및 컨퍼런스를 통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홍보활동도 한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영국, 미국의 국제 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제 학술지를 통해 비디오댄스 분야의 학문적인 논의를 하고, 교육부와의 대화를 통해 비판적 사고, 행동, 사회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공유한다.

2017년에는 REDenCONSTRUCCIÓN(네트워크 구축)을 모토로 하여 REDIV(비디오댄스의 이베리아 아메리칸 네트워크)의 첫 회의를 주최했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장학금을 받은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프랑스, 브라질에서 몇 권의 책의 발간하며 멀티미디어 전시회, 상영, 설치, 사진, 예술가 주거 및 LAB VD17(비디오댄스의 프로젝트 개발 연구소)를 진행했다.

특히 'VideoDanzaBA'는 다른 댄스필름 페스티벌과 비교했을 때 댄스필름 상영, 워크숍, 교류, 유통 등은 비슷하지만 학자들 간의 학술적 논의를 통한 교육적 활동과 책 발간, 사회적 참여, 그리고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지역을 포괄하는 예술적 비전의 차별성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댄스필름 개척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 (2) 국내 무용영화제

### ① 서울무용영화제 Seoul Dance Film Festival

그동안 국내에서 무용영화 분야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수렴은 서울무용 예술축제(SIDance)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디지털댄스 페스티벌(DIDance Festival)'과 지역의 축제 형식으로 이루어진 '천안춤영화제' 정도였다.

디지털댄스 페스티벌(DIDance Festival)은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산업진흥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신아의 주도 아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되었었다. 무용영상 상영, 무용영상 테크놀로지 공동공연, 포럼, 댄스&스크린&미디어 아티스트 릴레이 파티, 전시 등으로 진행되었다.<sup>21</sup> 무용과 영상의 활용 범위를 아우르며 페스티벌 형식으로 다양성을

추구한 것은 그 발전 가능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의 발로(發露)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다년간의 운영은 무용영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켰다.

지역에서 진행된 무용영화제로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천안춤영화제’가 있었다. 춤을 소재와 주제로 한 24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모든 세대의 관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들로 선정”<sup>22</sup>하여 대중성에 중점을 두었고, 지역의 축제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즉 지역주민들과 무용영화를 감상하는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의 무용영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무용영화에 대한 개념부터 범위, 페스티벌이 갖는 목적성에 따라 프로그래밍에 차이가 있었다. ‘디지털댄스 페스티벌’은 미디어 테크놀리지와의 공연이 부각되었고, ‘천안춤영화제’는 무용을 소재와 주제로 한 대중적인 영화의 상영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영화진흥회와 미국의 댄스필름협회에 등록되어 공식적인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무용영화제는 ‘서울무용영화제’가 유일하다. 지난 2017년 11월 3-5일까지 3일 동안 명보아트홀 명보아트시네마와 예술동 코쿰홀에서는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이제 무용영화에 대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구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국내에서도 무용영화제가 시작된 것이다.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는 영상예술포럼과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한국 최초의 무용영화제이다. 영상예술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울무용영화제를 설립하였다.

영상예술포럼의 첫 프로젝트인 ‘서울무용영화제’는 무용 공연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일반 관객에게 쉽게 다가가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근현대 한국 영화사에서 신체(몸) 움직임을 통한 연기구성과 영상미학을 담은 영화를 소개함으로써 한국영화 주제 확장을 통해 영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3</sup>

<sup>21</sup> <http://blog.naver.com/didance> (검색일: 2017.11.01)

<sup>22</sup> 천안시가 후원하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며 천안춤영화제 추진위원회가 주관. 2017년 10월 26-28일 개최. <http://blog.naver.com/cadff> (검색일: 2017.11.01)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무용영화제'를 개최한 집행위원장 정의숙은 “해외에는 ‘댄스필름’이라는 장르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무용계는 창작 안무를 무대에 올리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대중적인 영상 매체와의 결합을 통해 또 다른 무용 장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영화제를 기획하게 됐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래밍이 제1회 영화제의 목표다.”<sup>24</sup>라고 기획 취지를 말했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 아래 시작된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의 프로그래밍은 무용영화의 소개와 같은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작품이 프로그래밍 되었고, 개막작을 포함해 총 33개의 작품이<sup>25</sup> 상영되었다.

표 1 |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의 전체 프로그램

상영 프로그램 <sup>26</sup>	
개막작	〈더 댄스〉
2017 SDDF's 초이스	무용가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댄싱 드림즈〉, 〈분홍산〉, 〈무용가 최승희〉
댄스필름 NOW	샌프란시스코 댄스필름 페스티벌에서 지난 2년간 관객들에게 사랑 받은 작품 시리즈
2017 SDDF 공모작 베스트	국내 무용영화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진행한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들
프로젝트 SDDF	2016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프로젝트 후속지원작 및 해외 수상작 2017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프로젝트 TAKE# 선정작

<sup>23</sup> 2017년 2월 14일 설립. 대표이사장 박일규, 미디어 영상, 공연, 인문, 예술 그리고 기술을 포함하는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렴하고, 새로운 시장 창출에 대비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문화예술의 산업현황과 올바른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에 목적이 있다. <http://www.mediaartforum.kr> (검색일: 2017.11.02)

<sup>24</sup> 장영엽, 〈서울무용영화제 정의숙 집행위원장 - 대중성 갖춘 무용영화로 관객과 만나겠다〉, 《씨네 21》, [http://www.cine21.com/news/view/?idx=4&mag\\_id=88590](http://www.cine21.com/news/view/?idx=4&mag_id=88590) (검색일: 2017.11.02)

<sup>25</sup> 상세프로그램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diaartforum.kr> (검색일: 2017.11.02)

상영 프로그램 <sup>26</sup>	
개막작	〈더 댄서〉
폐막작	〈댄싱 베토벤〉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li> <li>-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 공모전 최우수작품상 및 감독상 시상,</li> <li>- 관객과의 대화,</li> <li>- 강연 서양범 〈무용을 말하다〉 댄스필름 입문 강의</li> </ul>

화제성과 대중성이 있는 개막작과 폐막작 외에도 프로그램의 구성은 ‘서울무용영화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SDDF’s 초이스’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무용영화의 범주에 포함하고, ‘댄스필름 NOW’는 해외에서 가장 주목 받는 무용영화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댄스필름 페스티벌에서 지난 2년간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작품 시리즈를 상영함으로써 최근의 댄스필름의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2017 SDDF 공모작 베스트’는 서울무용영화제의 궁극적인 역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100여 편의 공모작 중 최우수작품상과 감독상, 두 편의 특별상을 시상했다. 이는 국내 무용영화의 시장형성과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체제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다. ‘프로젝트 SDDF’는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와의 협업 프로젝트로, 무용영화의 교육과 실험을 통해 생성된 작품을 ‘서울무용영화제’를 통해 상영함으로써 두 기관이 서로 상생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그리고 공모작에 대한 시상을 통해 창작동기를 자극하고 관객과의 대화로 대중과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구성은 ‘서울무용영화제’가 추구하는 대중성, 창작 지원, 역량 있는 예술가 발굴, 해외교류의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잘 표출하고 있다.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디딘 ‘서울무용영화제’는 출발은 늦었지만 축적된 문화적 요구의 발로로 인해 생긴 만큼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늦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조직과 운영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무용가들의 개별적인 창작이나 축제의 일환으로 시도되어 무용과 영화계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었기 때문에 무용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본격적

<sup>26</sup> 2017년 세자르 영화제 ‘베스트 의상상’ 수상, 2016 칸 영화제 ‘주목할 만 한 작품’ 선정.

인 인식의 시작은 요 근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서울무용영화제'는 진보된 해외의 여러 무용영화제와 함께 교류하며 국내 무용영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내 무용영화 발전 가능성

미국의 댄스필름협회가 1956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용영화라는 예술적 장르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국내 무용과 영화의 창작에 있어 또 하나의 예술적 가치와 표현의 다양성을 놓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그 동안 '영화를 위한 안무'라는 장르 개념으로서의 댄스필름은 부각되지 않았었다. 무용과 영화의 융복합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시도가 있어왔지만, 무대 공연을 위한 표현의 수단이나 인터랙티브 퍼포먼스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창작물이 주를 이루었다.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무용영화는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의 '댄스필름 프로젝트'에 의해 조금씩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2017년 '서울무용영화제'가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무용영화의 장르적 인식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상영, 유통까지 아우르는 장이 마련되었다. 국내 무용영화 발전에서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는 이제 커다란 두 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무용영화 창작에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는 무용과 영상의 이해와 협업, 그리고 조화에 가치를 둔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는 무용과 영상 예술가가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하면 그리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1차적으로는 예술가 개인의 관심으로 접근이 선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 무용영화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용영화에 대한 예술적, 기술적 이해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2016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무용센터에서는 '댄스필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댄스필름의 필요성을 수용하여 예술가 교육 프로그램 일환

으로 기획된 것이다. 2017년에는 서울무용센터 ‘댄스필름 프로젝트 <TAKE#>’이라는 컨셉으로 안무와 영상 예술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총 8명(안무가 4명, 영상작가 4명)의 예술가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1:1 매칭으로 4팀으로 구성되고 각 팀별로 제작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4개월 간 댄스필름 특강과 참여 예술가들의 릴레이 상호티칭 워크숍을 통해 댄스필름 제작을 위한 각자 전문 영역의 지식을 공유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팀별로 10분 내외의 댄스필름을 제작했다. 완성된 댄스필름은 서울무용센터와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 초청작으로 상영되며, 추후 국내외 메이저 무용영화제 출품을 위한 지원도 진행된다.<sup>27</sup>

‘댄스필름 프로젝트’에서 선정되어 팔목할 만 한 성장을 보인 예술가로는 김모든이 있다. 그는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워크숍을 통해 <자메뷰(Jamais Vu)>를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미국 애틀랜타 ‘EnCore Dance on Film Festival’에 초청돼 상영되었으며, 이탈리아 제노바 International Videodance Contest인 ‘Stories We Dance’에서 ‘Best Concept’ 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에서도 상영되었다.

무용영화 제작을 위한 교육을 서울무용센터에서 시작했다면, ‘서울무용영화제’는 국내외 교류와 상영, 유통까지 하며 무용영화 예술가들을 위한 실질적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무용영화제’의 구성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창작동기 부여와 시장형성을 위해서는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정의숙 서울무용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인터뷰 중 “국내 무용영화 시장을 형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공모전을 열었는데, 100여 편의 작품이 들어와 놀랐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앞으로 무용영화 장르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sup>28</sup>고 말했다. ‘서울무용영화제’ 사무국장 김지연은 “사실 공모전을 진행하기 전에 무용영화라는 생소한 장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모아질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영화제 공모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그동안 이 분야에

<sup>27</sup>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보도자료, <http://www.sfac.or.kr/html/opensquare/press.asp?flag=READ&Seq=42334> (검색일: 2017.11.01)

<sup>28</sup> 장영엽, 앞의 기사 참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뛰어낼 수 있는 장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sup>29</sup>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무용영화에 대한 관심과 예술적 욕구가 실질적인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모작 중 7편이<sup>30</sup> 당선되어 이들 중 최우수 작품상<sup>31</sup>과 최우수 감독상<sup>32</sup>, 심사위원 특별상 2편<sup>33</sup>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는 국내 무용영화 발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무용영화 제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펼칠 수 있는 '서울무용영화제'의 등장은 김지연의 말처럼 뛰어낼 수 있는 장으로써 그들의 든든한 지원과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정민은 “무용영화 장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sup>34</sup>로서 '서울무용영화제'의 가치를 말한다. 김지연은 “국내에서 무용영화가 자리 잡고 국내의 무용수와 감독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플랫폼 역할”<sup>35</sup>로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의 목표와 방향성을 말한다. 정의숙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영화제가 발전하려면 무용하는 사람들과 영화인들, 관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궁극적으로는 해외의 안무가들이 작품을 출품하고 국내에서 만든 무용영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국제영화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다.”<sup>36</sup>라고 말한다. 이는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를 국내 무용영화 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그 역할과 가치를 상정하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의 무용영화제는 교육과 실험의 장을 마련하고 상영, 유통, 해외교

<sup>29</sup> 김지연 외,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를 개최하며, 총영화에 대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방향제시를 위한 첫 작업〉, 《댄스포럼》 217호, 2017, 75쪽.

<sup>30</sup> 양소영〈율리아〉, 박재평·박종빈〈Mit dir〉, Jordan Fuchs·최예진〈Landscape without Horizon〉, 권령은〈잊지않을 행진〉, 송주원〈풍정, 각(風情, 刻)〉, 김경식〈발레리나〉, 정대욱〈미완성〉.

<sup>31</sup> 송주원〈풍정, 각(風情, 刻)〉.

<sup>32</sup> 정대욱〈미완성〉.

<sup>33</sup> 권령은〈잊지않을 행진〉, 김경식〈발레리나〉.

<sup>34</sup> 김지연 외, 앞의 글, 77쪽.

<sup>35</sup> 김지연 외, 앞의 글, 75쪽.

<sup>36</sup> 장영엽, 앞의 기사 참고.

류, 지역사회와의 예술적 소통을 제공하며 보다 실제적인 무용영화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제 막 출발선에서 한 걸음 내디딘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협업은 서로에게 더 없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다. ‘댄스필름 프로젝트’는 교육과 실험의 장이 되고, ‘서울무용영화제’는 예술가와 대중들을 위한 상영, 유통, 세계로의 진출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국내 무용영화 발전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협업과 상생은 국내 무용영화의 발전에 보다 실제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3. 결론

지금까지 무용영화의 개념과 발전과정, 해외 여러 무용영화제와 ‘서울무용영화제’의 현황과 특징을 논의하며 국내 무용영화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고 무용영화제의 역할과 가치는 무용영화의 발전에 있어서 전초기지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무용영화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역량 있는 무용영화 제작자 발굴, 여러 부문 시상상을 통한 창작의욕 증진, 작품 상영, 공개토론, 국제교류, 유통, 댄스필름 제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워크숍 진행, 아카이브 운영 등 무용영화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무용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과 강한 연대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비롯한 대중들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무용영화제’와 서울무용센터의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연계로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댄스필름 프로젝트’가 댄스필름 제작의 교육과 실험의 장이었다면, ‘서울무용영화제’는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작품들을 상영하는 세션을 마련하여 이들의 작품을 상영하였다. 이외에도 국내 작품과 해외의 최신 댄스필름의 작품을 상영하고 경향을 소개하며 대중에게 댄스필름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대한 인식을 부각시켰다. 공모전을 통해서도 창작동기를 자극하고 예술가들을 발굴했다. 나아가 무용

영화의 시장을 형성하며 해외 교류와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성과는 국내의 무용영화계 상황을 비춰봤을 때 더 없이 중요하다. 무용영화에 입문하는 것에서부터 마지막 단계인 유통까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댄스필름 프로젝트의 교육과 실험, 그리고 무용영화제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국내 무용영화 제작자들과 관련자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함으로써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서울무용영화제'와 '댄스필름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국내 무용영화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었다면, 마지막으로 무용영화 발전의 1차적인 책임을 다 해야 하는 무용영화 예술가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가치관에 대해 논의하며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발레를 하다 영상디자이너로 전환하여 서울예대에 재직 중인 서양범 교수는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댄스필름은 무용도 아니고 영상도 아닌 또 다른 무용에서의 새로운 장르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댄스필름 제작은 일방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의 충분한 이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과 영상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수성을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의 목적성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 이 동작을 영상프레임에 담아야 하는지, 왜 가까이 보이게 하는지, 왜 아래에서 위를 향해 촬영하는지 등 무용의 동작과 함께 전체 댄스필름 제작의 의도와 목적이 전체 필름으로부터 세세한 슷트의 작은 단위까지 무용과 영화의 유기적 상호관계 속에서 그 내용과 의미가 담겨있어야 합니다.<sup>37</sup>

무용평론가 심정민은 <새로운 첨단의 영역, 무용영상에 대한 이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용과 영상의 이상적인 접점을 실험하면서 새로운 창조적 형태의 무용영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현란한 테크놀러

<sup>37</sup> 김지연 외, 앞의 글, 77쪽.

지를 통한 감각의 자극은 강렬하지만 짧은 순간에만 소통될 수 있는 것이며, 결국 진정한 감흥은 보여지는 현상 속에 내재한 창조적 상상력이나 독창성, 예술적 감성 등과 같은 전통적이고 근원적인 미학에 근거한다는 점이다.<sup>38</sup>

서양법과 심정민의 의견은 무용영화 예술가들이 지녀야 할 자세와 가치관을 보여준다. 예술가들은 무용영화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에 임해야 한다. 이는 무용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무용과 영화의 활용방법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가로서의 철학적, 미적 가치관을 내재하고 창작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영상 테크놀러지의 실현 현상으로써만이 아닌 무용과 영화의 실험 안에서 생성되는 또 다른 철학적, 미학적 탐구의 결과물으로써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술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받는다. 결국 예술적 가치는 어느 장르를 불문하고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은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sup>38</sup> 심정민, 앞의 글 참고.

## 참고문헌

### 논문

- 김은정, 「마야 데렌(Maya Deren) 댄스필름의 특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 김지연 외, <제1회 서울무용영화제를 개최하며, 춤영화에 대한 이해와 진단, 그리고 방향제시를 위한 첫 작업>, 《댄스포럼》 217호, 2017.
- 박유정, 「댄스필름에 나타난 영상기법에 대한 연구 : 빔 반데키부스의 〈Blush〉와 로이드 뉴슨의 〈The Cost of Living〉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 한선비, 「무용 작품과 댄스 필름의 관계적 특성연구 : 마야 데렌과 로이드 뉴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3.

### 기타

- 김모든 전화 인터뷰.
- 심정민, 「〈비탄의 황후〉에 나타난 피나 바우쉬의 예술적 특질-무용예술과 영상매체의 조우를 중심으로」, 《오프엔프리영화제 포럼》 자료, 2009.11.22.
- \_\_\_\_\_, 〈카메라에 비춰진 춤〉, 《국립극장 미르》 프로그램, 2007년 2월.
- \_\_\_\_\_, 〈새로운 첨단의 영역, 무용영상에 대한 이해〉, 《댄스포럼》 자료, 2006년 2월.
- ‘춤, 영화로 담다’ 《서울무용영화제》 프로그램, 2017년 11월.
- 댄스 온 카메라 [www.dancefilms.org/dance-on-camera](http://www.dancefilms.org/dance-on-camera)
- 디지털 댄스 페스티벌 [blog.naver.com/didance](http://blog.naver.com/didance)
- 미국 댄스필름협회 [www.dancefilms.org](http://www.dancefilms.org)
- 샌프란시스코 댄스필름 페스티벌 [www.sfdancefilmfest.org](http://www.sfdancefilmfest.org)
- 스토리즈 위 댄스 [augenblick4.tumblr.com/storieswedance](http://augenblick4.tumblr.com/storieswedance)
- 아르헨티나 댄스필름 페스티벌 [videodanzaba.com.ar](http://videodanzaba.com.ar)
- 영상예술포럼 [www.mediaartforum.kr](http://www.mediaartforum.kr)
- 천안춤영화제 [blog.naver.com/cadff](http://blog.naver.com/cadff)
- 서울문화재단 [www.sfac.or.kr](http://www.sfac.or.kr)
- 씨네21 [www.cine21.com](http://www.cine21.com)

##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omestic Dance  
Film's Development  
- Focusing on 'Seoul Dance Film Festival' and  
'Dance Film Project'**

*LEE, Eunjoo*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Dance  
Adjunct Professor*

*CHUNG, Euisook*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Dance  
Professor*

Dance films, which started together as a combination of dance and video technology, have evolved into a new genre. Overseas, from early 1950s, experimental dance films have been produced and the dance film association is organized along with many dance film festivals are being held. Howev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perception and creativity of the genre of dance films in Ko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holding of the 'Seoul Dance Film Festival' and experimental approaches by 'Dance Film Project' are important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dance films.

Therefore,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dance films, the status and features of various overseas dance film festivals and the 'Seoul Dance Film Festival'. This paper also explores the roll and function of 'Seoul Dance Film Festival' and 'Dance Film Project', and their expected benefit along with possibilities of prosperity of domestic dance film. 'Dance Film Project' is the educational and experimental venue for producing of dance films, and the 'Seoul Dance Film Festival' is a

platform for producing dance film makers, show of works, dialogue with audiences, international exchanges, and distributions. The dance film festival embodies the value of the past and current flow of the dance film and is intrinsic to the existence of a live content that can be predicted the future aspect of its roll. The two groups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are expect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dance films.

---

**Keywords**

Dance, Film, Dance Fim, Maya Deren, Dance Film Association, Dance Film Festival, Seoul Dance Film Festival, Dance Film Project

---